

# ‘4년 지연’ 아리안 6호 발사 유럽우주국 “역사적인 날”

### 11개 초소형 연구용 위성 궤도 안착 “2026년까지 15번 더 쏘아 올릴 것”

항공우주 기술력 향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각축전 속에 우주로 향한 유럽의 새로운 희망을 담은 아리안 6호 로켓이 4년 지연 끝에 지난 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발사됐다.

유럽우주국(ESA)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유럽우주국(ESA) 발사장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6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발사 장면은 ESA 유튜브 공식 채널로 생중계됐다.

애초 ESA는 이날 오후 3시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데이터 수집 관련 경미한 문제”를 발견해 점검

을 마친 뒤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발사했다.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로켓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학에서 개발한 11개의 연구용 초소형 위성을 비롯한 ‘승객’들을 지구 저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 연구팀 위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A는 발사 1시간6분여 뒤부터 위성들이 성공적으로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요제프 아슈바허 ESA 사무총장은 유튜브로 중계된 연설에서 “유럽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하게 웃었고, 지상 교신국의 ESA 직원들은 박수로



▶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발사대에서 아리안 6호가 발사되고 있다.

화답했다.

56m 길이의 아리안 6호는 지난해까지 27년간 117회에 걸쳐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우주 발사체 역할을 한 아리안 5호를 대체하는 유럽의 차세대 로켓이다.

아리안 5호는 인류 최초 해상탐사선 ‘모제타’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등을 우주로 실어 나른 바 있다.

ESA는 애초 아리안 6호 발사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개발 도중 기술적 문제로 4년 지연됐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ESA는 스페이스X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앞세우는 민간 우주개발업체와의 경쟁이 거세지자, 민간업체인 아리안그룹과 손잡고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왔다.

토니 툴케 낄슨 ESA 국장은 로켓

발사 전 로이터통신에 “첫 위성이 로켓에서 사출됐을 때 안도의 한숨을 처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발사가 성공하면 유럽은 우주로 복귀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안 6호 첫 발사는 재사용 가능 로켓 상부가 태평양에 안전하게 낙하하면 ‘임무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ESA는 설명했다.

아리안 6호는 올해 1번, 내년엔 6번, 2026년 8번 더 발사될 예정이다.

현재 이 로켓의 ‘경쟁 상대’는 일본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유스 등 러시아산 로켓 사용이 제한되며 아리안 그룹과 스페이스X를 찾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영 새 의회 개원... ‘총선 압승’ 노동당 의석 부족 진풍경

### 여성 40%, 유색인종 14% ‘최다’... 의장에 노동당 호일 재선출

영국 새 의회가 총선 닷새 만인 지난 9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다.

지난 하원에서 의장을 맡았던 노동당의 린지 호일 의원이 이날 반대 의견 없이 재선출된 데 이어 당선인들이 하원 의원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은 650석 중 412석을 휩쓸었으며 보수당은 121석에 그쳤다. 자유민주당은 72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9석, 신페인당 7석, 영국개혁당과 민주통합당(DUP) 각 5석, 녹색당과 웨일스민족당(PC)은 각 4석을 확보했다.

이날 의원들이 착석하면서 노동당의 압승 규모가 시각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의회 야당이었던 노동당 의원들은 반대편 집권 여당 벤치로 자리를 옮겼고, 자리가 부족해 상당수 의원은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스타머 총리는 첫 의회 연설에서 “너무 자주 사익을 위하여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정치를 끝내야 할 때”라며 “우리는 정치가 선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나라가 그간 보여준 것과 비교해 가장 인종과 성별로

다양성 있는 의회”라고도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새 하원 의원 650명 가운데 263명(40%)이 여성으로 2019년(220명)보다 늘어 역대 최다이며 유색인종 출신 의원은 90명(14%)으로 2019년 66명보다 늘었다. 처음 의회에 입성



지난 4일 치러졌던 영국 새 의회가 지난 9일(현지시간) 개원했다.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총선에서 650석 중 412석을 휩쓸어 이날 개원식에서 자리가 부족해 상당수 의원은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AFP연합뉴스

한 의원은 335명이다. 2019년에는 초선 의원이 140명이었다.

제야당 대표가 된 보수당의 리시 수낙 전 총리는 연설에서 “하원의원은 가장 큰 영예이고 특권이며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라고 말했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극우 성향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개혁당 소속 5명을 “뉴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소개했다.

공식 개원식은 오는 17일 찰스 3세 국왕과 케틸라 왕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개원식에서 정부의 정책 및 입법 청사진이 ‘킹스 스피치’(국왕 연설)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 페루서 실종 등반가 22년 만에 미라로 발견

페루 최고봉을 등반하다 실종된 미국인이 22년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가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루 경찰은 우아스카란 산(해발 6천768m) 제1캠프(5천200m)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 수습은 지난 5일께 페루 경찰 산악구조팀과 설산 등반 가이드 업체 측 인력에 의해 진행됐다.

사망자는 22년 전 실종된 미국 국적 윌리엄 스태플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스태플은 2002년 6월24일 지인 2명과 함께 등반하던 중 눈사태로 실종됐다. 당시 3명 중 1명의 시신은 찾았으나,

스태플과 나머지 한 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스태플의 시신은 발견 당시 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 위에 덮였던 눈과 얼음 영향으로 옷, 하네스, 로프, 등산화 등은 거의 원형을 유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신 품에 있던 소지품 중 운전면허증을 통해 사망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우아스카란은 페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안데스산맥 일부인 코르디에라 블랑카 산맥에 위치해 있다.

코르디에라 블랑카 등산 성수기는 남반구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5-9월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北, 日 오염수 방류 비난... “무서운 핵재난”

북한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로 전 세계가 “무서운 핵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핵오물”을 바다에 퍼붓는 최악은 절대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원전 부

근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졌다며 “안전한 관리”와 “깨끗한 처리수”라는 일본의 설명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방출해 “국제사회에 ‘면역’을 조성해 범죄적 책동을 ‘정상적인 활동’들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b>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b>	<b>매일/9시~</b>
<b>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b>	<b>수시접수</b>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